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2. 3. 6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민일보 “한국 지분 하루 1만7000배럴... UAE
유전 개발 닷 올렸다”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요지 (‘12.3.6. 국민일보)

- UAE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본계약 체결로 100% 지분확보 가능성을 거론한 정부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작년 3월, 한국이 최대 100%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아부다비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, 협상 과정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 진행함
 - UAE 측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여 한국이 지분 100%를 갖고 단독 운영하는 것과 UAE와 한국이 60대 40 지분을 갖고 공동 운영하는 안으로 협상 진행함
- 우리측은 장·단점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60대 40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 것임
 -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동 지역에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, 추가탐사에서도 탐사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,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다른 유전에 추가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
 - 또한 개발·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·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공동운영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임
- 따라서, 정부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연 사무관(02-2110-5432)